

眞靜國師의 二元的 世界觀과 文學的 指向

강 석 근*

차 례

- | | |
|---------------------|---------------------|
| I. 머리말 | III. 선사상의 문학적 수용 |
| II. 법화·천태사상의 문학적 수용 | 1. 선적 행보와 그 지향점 |
| 1. 법화적 행보와 그 지향점 | 2. 선적 논리와 서정의 시적 합일 |
| 2. 천태 논리와 정서의 시적 전개 | IV. 맺음말 |

I. 머리말

진정국사 天頤¹⁾(1206~1294(?))은 천태종의 신앙결사인 白蓮社²⁾의 고승이었

* 동국대학교 강사

- 1) 진정국사 천책의 속성은 申氏이고 이름은 미상이지만, 정약용, 고익진, 허홍식, 채상식 등은 申克貞으로 추정하였다. 고려 태조의 공신인 申厭達의 11대 후손으로 20세에 예부시에 급제하고 23세 때 백련사의 요세에게 귀의하여 승려가 되었다. 그의 문집은 『湖山錄』, 『선문보장록』, 『禪門綱要』, 『海東法華傳弘錄』, 『室簿錄』 등이 있다. 그러나 『호산록』은 전체 4권 가운데 1·2권은 산절되었고 『선문보장록』과 『선문강요』는 동명이인의 저작이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해동법화전홍록』은 일부만 전하며 『실부록』은 전해지지 않는다.
- 2) 『만덕사지』에 따르면 백련사는 고려후기에 8명의 국사를 배출했다고 한다.

다. 백련사는 圓妙國師 了世에 의해 창립되었고, 天因, 圓腕, 천책으로 그 범통이 이어지며 혼란했던 시대를 法華思想으로 극복하려 했던 신행단체였다. 백련사는 보조국사 知訥에 의해 창립된 조계종의 修禪社와 함께 개혁신교의 상징이었고, 불교계를 이끌어가던 2대 문파의 하나였다. 백련사를 이끌던 많은 사주들 가운데 백련사의 종교적·정치적·문화적 위상을 현저하게 고양시킨 이는 천책이었다. 그는 세속에서 科擧에 급제한 인연과 문학적 역량을 이용하여 많은 사대부들과 교류하였고, 교류하던 사대부들을 백련결사에 적극 동참시켰다. 그는 法華·天台사상을 신봉하고 적극 실천하려 했다. 우수한 인물에서부터 근기가 부족한 중생들까지를 불법의 세계로 이끌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였다. 특히 문학을 적극 활용하였다. 그는 불법을 펼치는 도구로 문학을 활용했지만, 그의 시문은 사상적이거나 문학적으로도 매우 뛰어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정약용이 강진에 유배되었을 때, 萬德山 백련사의 寺志를 편찬하면서 천책의 시문을 보고 그 우수함에 감동하여, 최치원, 이규보, 천책을 신라와 고려를 대표하는 3명의 시인³⁾으로 규정하였다. 다산의 평가에서 보듯이 그의 문학은 대단한 수준이었지만 그는 한국문학사에서 잊혀진 시인이었다.

그와 그의 저술에 대한 연구는 불교학계와 사학계가 그 중심에서 있었다.⁴⁾ 그러나 아직까지도 생몰 연대, 범명 문제, 『禪門寶藏錄』의 저자문제는 의혹을 풀지 못했다. 이런 문제들과 그의 문학적 업적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학계가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

지금까지 천책의 문학적 업적을 다룬 논문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천

3) 정약용, <題天頭國師詩卷> 『여유당전서』, 고전국역총서 14권, 민족문화추진회, 1984, 214쪽, “余觀天頭之詩 濃麗蒼勁 無蔬荀淡泊之病 其學搏洽該貫 而其才敏於用事 上之可以駢駕愁山 下之可以拍肩蒙叟 惜乎名已泯矣 若使操衡藝苑者 揀三人於羅麗之世 則崔致遠 天頭 李奎報 其額也.”

4) 고익진, 『백련사의 사상전통과 천책의 저술문제』, 『불교학보』 T6집, 1979.

한기두, 『한국선사상연구』, 일지사, 1983.

이재창, 『고려후기전통선의 동태 -지검, 일연, 천책을 중심으로-』, 『한국선사상연구』,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4.

이영자, 『한국천대사상의 전개』, 민족사, 1988.

허홍식, 『고려불교사연구』, 일조각, 1990.

채상식, 『고려후기불교사연구』, 일조각, 1991.

경허 편, 이철교 역, 『선문촬요』, 민족사, 1999.

책의 시에 대한 연구의 선편은 이종찬이 잡았다. 이종찬은 천책의 시적 특징은 연작과 즉흥적 대응에 있고, 사상적으로는 범화적 세계관이 두드러지고, 문학적 논리는 방편적 문학론이며, 그의 백련결사는 일종의 詩社⁵⁾라 하였다. 허홍식⁶⁾은 문집의 서지적 고찰과 불교사적 특징을 정리하고, 『호산록』을 주해하였다. 우현식⁷⁾은 천책의 문학관은 효용적이면서 實相의이고 시세계는 자연스러운 표현, 여유있는 구성, 詩意의 효과적인 전달이 특징이라 하였다. 그리고 필자⁸⁾는 그의 행보와 문학행위가 곧 ‘詩的 佛事’라 규정하였다.

본고의 목적은 천책의 행적과 시문에 나타난 사상적 특징과 문학적 지향점을 밝히는데 있다. 천책은 범화·천태적 세계관을 토대로 살아가던 인물인데, 한국선종사에서 매우 중요한 禪書로 평가되는 『선문보장록』도 남겼다. 이는 그에게 범화사상과 선사상 모두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런 사실 때문에 천책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증폭되었고, 그와 그의 저작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런 이유로 이 논문은 『선문보장록』의 저자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고 『호산록』의 문학적 가치를 밝히는데 매우 유익할 것이다.

II. 범화·천태사상의 문학적 수용

1. 범화적 행보와 그 지향점

姚秦의 구라마집이 번역한 『범화경』의 공식 이름은 『묘법연화경』이다. 이 책은 대표적인 대승경전으로 “부처의 지혜를 열어 보여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부처의 지혜에 들게 하기 [開示悟入]”위하여 설해진 것이다. 『범화경』의 주논리는 ‘會三歸一’과 ‘久遠實成’이다. ‘회삼귀일’은 三乘이 곧 一乘이라는 논리

5) 이종찬, 『天頤의 道眼無隔의 禪理詩』, 『한국불가시문학사론』, 불광출판사, 1993, 166~167쪽. 참조.

6) 허홍식, 『진정국사와 호산록』, 민족사, 1995.

7) 우현식, 『진정국사의 문학과 시세계』, 한국정신문화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8) 강석근, 『천책의 행적과 시적 불사』, 『한국불교시연구』, 이회문화사, 2002.

이다. 지혜가 부족한 성문, 연각, 보살과 같은 三乘들도 부처가 될 수 있고, 절대로 성불할 수 없다는 一闍提가 곧 부처라는 논리인데, 이는 지극히 대승적이고, 혁신적이다. ‘구원실성’은 부처는 오랜 옛날에 이미 깨달은 영원불멸한 존재인데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 석가모니의 몸으로 化生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부처는 죽지 않는 영원한 진리이며 생명이라는 것이다.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고 또한 영원하다는 범화사상은 불교의 대표적 사상이다.

천책은 범화사상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 경을 펴기 위해 노심초사하며 살았다. 그가 『법화경』을 받들며 범화사상을 이 땅에 구현하려던 서원과 노력은 그의 시문 곳곳에 드러나 있다. 필자는 천책의 이런 삶을 ‘法華世界の 현세적 구현⁹⁾’으로 규정한 바 있다.

다음 글에는 『법화경』을 존송하는 그의 자세와 이 경을 널리 펴려는 실천적 태도가 잘 나타나 있다.

『법화경』은 제불이 降靈한 근본이며, 군생들이 득도하는 원천이므로 가장 오묘하고 가장 높으며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견주어 상대할 수 있는 주장은 없습니다. 천 명의 성인에게 찬양하게 하여도 오묘한 뜻을 다 궁구하기 어렵다는 것은 진실로 『법화경』을 두고 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빈도는 재주가 없지만 이 『법화경』을 널리 펴기를 발원하여 무릇 40년이 되도록 간절히 깊은 이치를 찬양하고 대사를 펴려하였으나 머뭇거리느라 여가를 갖지 못하였습니다.¹⁰⁾

『법화경』에 대한 이 같은 찬탄은 천태종을 창립한 天台 智顓(538~597)의 5 時說에 근거한다. 이런 논리는 다른 경전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법화경』을 최고의 경전으로 생각한 천태의 독특한 교학체계이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법화경』의 가르침을 강설하기 위해서였고, 앞서 강설한 여러 경전들은 『법화경』을 말씀하시기 위한 방편이라는 논리이다. 이러한 논리 때문에 『법화경』은 三乘을 아우르는 一乘의 가르침이며, 十方 三世의 모든 부

9) 강석근, 앞의 책, 119쪽.

10) 『호산록』 3권, <更和法花隨品讚并序>, “(…)法華經者 諸佛降靈之體 群生得道之源 可謂獨妙獨尊 盡善盡美 故無兼但對帶之說 任千聖以讚揚 難窮妙旨 誠哉此言 貧道不佞 發願弘經 將四十年 切欲讚揚玄旨 發揮大事 而因循未暇(…)”

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신 큰 뜻이요 九道 四生이 함께 부처가 되는 큰 길로 들어가는 넓은 문¹¹⁾이라고까지 찬양되었다. 그래서 이 경전은 천 명의 부처가 오묘함을 찬양하려 해도 다 찬양할 수 없는 경전이므로 그는 40년 동안이나 이경을 펼치려 했다는 것이다.

천책은 이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는 근기가 부족한 대중들을 위한 방법이고, 둘째는 최상층의 근기를 가진 지식인들을 위한 행위였다. 근기가 부족한 하층민들을 위해서는 염불과 정토신앙을 권하고, 『법화경』을 읽고 믿어서 생긴 영험담으로 그들을 이끌어들었다. 이런 노력은 종교적 영험담인 『해동법화전홍록』¹²⁾의 편찬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詩文을 통해서 상층의 인물들을 불법의 세계로 인도하였다. 그가 포교의 대상으로 삼은 주된 계층은 사대부였다.

다음 시에는 『법화경』을 공부하고 받드는 그의 태도가 잘 나타나 있다.

坐落崑花四十春	꽃잎 진 바위에서 수도한 지 사십 년
古人高跡偶相循	옛사람의 고상한 자취 우연히 쫓아가네
儂過初結山中友	잘못 참회하고 처음 산중 벗과 결사하고
妙典遙傳海外人 ¹³⁾	『법화경』을 멀리 외국에까지 전하였네
雪髮渾頭嗟種種	하얗게 세어버린 머리 때때로 슬피가지만
金文得意喜津津	경전에서 진리 찾으니 기쁨이 넘쳐나네
之乎者也非吾事	문장 다듬는 것이야 나의 일은 아니지만
只爲玄門斧藻新	다만 불문을 위해 새롭게 글을 쓴다네

<호산록 3권, 次韻又答, 2수 중 두 번째 시>

이 시는 당대의 문하시중인 樂軒居士 李藏用(1201~1272)의 백련사 入社詩에 林桂一이 차운하여 천책에게 보내자, 천책이 임계일에게 답한 작품이다.¹⁴⁾ 이

11) 元曉, 『法華經宗要序』, 『동문선』 83권, “妙法蓮華經者 斯乃十方三世諸佛 出世之大意 九道四生 咸入一道之弘門也.”

12) 『해동전홍록』은 4권으로 되어 있으나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허홍식은 『진정국사와 호산록』에서 了圓의 『法華靈驗傳』에는 『해동전홍록』에서 인용된 이야기 9편이 전하고, 내용상으로는 3편의 이야기도 백련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총 12편이 전해진다고 하였다.

13) 詩註 “曾中成蓮花經分倭宋.”

14) <復次李相國詩韻 奉贈大尊宿杖下 俗弟子左拾遺林桂一上>.

시는 천책의 백련사가 詩社의 역할까지 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한 사람의 입사시에 여러 명의 사대부가 차운하고, 거듭 차운한 예가 그것이다.

이 시에서 천책은 임계일에게 자신의 일상과 사상적 지향점을 시라는 그릇을 빌려 담담하게 진술하고 있다. 천책은 입산한 이후 40년간의 산사 생활을 파노라마처럼 펼쳐내었다. 처음 천태종을 창립한 천태 지의의 발자취에 따라 23세 때 백련사에 입산하였다. 산사에 들어와 과거를 참회하며, 『법화경』을 공부하고 이 경의 가르침을 실천하였다. 또한 『법화경』을 대중들에게 읽히고 법화세계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 경전을 출판하여 일본과 송나라에도 보냈다. 이 때문에 청춘을 보낸 것을 아쉽게 여기면서도 그는 『법화경』에서 삶의 기쁨을 얻는다고 했다. 수식과 조탁을 위주로 하는 문학 창작에는 손뻐던 그였지만 『법화경』의 진리를 새롭게 해석하는 일은 마다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그는 法華行者¹⁵⁾라 불리었고, 이장용은 “시로써 불사를 편[以詩作佛事]”¹⁶⁾ 인물이라 하였다. “만약 머리 깎고 승려가 된 뒤에도 불법의 근원을 밝히지 않고 세속문자만을 짓는다면 마귀 아니면 외도이니 어찌 부처의 죄인이 아니겠는가.”¹⁷⁾라는 글에서 보듯이 그는 세속적인 글쓰기를 극단적으로 부정했다. 그러나 결구의 진술처럼 불법에 도움이 되면 그는 기꺼이 붓을 들었다.¹⁸⁾

2. 천태 논리와 정서의 시적 전개

천태 지의는 『천태삼부경』을 지어 『법화경』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법화사상을 체계화시켰는데, 이것이 천태사상이다. 천태사상의 주요한 특징은 ‘諸法實相’, ‘圓融三諦’, ‘一念三千’의 사상이다. 법화·천태사상은 변별적 요소도 많지만 본고에서는 구태여 구별하지 않았다.

다음 시를 통해서 ‘諸法實相論’의 특징과 문학적 변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5) 고익진, 『백련사의 사상전통과 천책의 저술문제』, 『불교학보』 16집, 1979, 133쪽.

16) 『호산록』 3권, <林拾遺(…)弟子樂軒老人李藏用上>이란 시에서 이장용은 천책을 평하여 ‘百篇時出指迷津’이라 하고, 시의 주석에서는 ‘謂以詩作佛事’라 하였다.

17) 『호산록』 4권, <答靈岩守金郎中愾書>, “(…)若髡爲浮圖氏 不明佛法根源 及著世俗文字 非魔卽外 豈佛庭之罪人歟.”

18) 『호산록』 4권, <答雲臺亞監閔昊序>에서 그는 세속적인 글쓰기와 이것으로 얻은 명예를 강하게 부정했다.

是非世上是非多
其奈研機樂道何
舌下醍醐翻妙旨
手中柳標當良馱
孤輪月向池心市
一帶雲從谷口呵
觸目俱爲眞實相
依然踏着本來家

시비 많은 세상에는 시비거리 다양하니
근기 연마하고 도 즐기는 것 어떠한가
혀 밑의 달콤한 우유는 부처님 말씀이고
손에 든 지팡이는 좋은 말 대신하네
외로운 둥근 달은 연못 중앙을 향해 둘러 있고
한 무리 구름은 계곡 입구로 불어가네
눈앞에 비친 모든 것이 진실한 모습이니
모두가 의연히 본가를 밟고 있구나
<호산록 3권, 次韻李居士穎并序¹⁹⁾, 24수 중 23수>

이 시는 李穎²⁰⁾의 시에 차운한 작품이다. 이영은 백련결사에 참여했던 사대부로서 천책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고종 때 과거에 급제해서 예부상서로 벼슬에서 물러났다. 불교에 심취해서 승려의 방장에 자주 출입했고 시를 잘 지었다. 이 시는 무려 24수나 되는 연작시이다. 천책의 문학적 역량과 두 사람의 친밀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다. 이런 示法詩를 통해 세속인에게 천대사상의 본질을 전하는 것이 천책이 글을 쓰는 주목적이었다.

이 시의 주제는 결련에 있고 결련을 지배하는 사상은 ‘諸法實相論’이다. 이 ‘제법실상’의 개념은 『법화경』의 ‘久遠實成’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제법실상의 妙理는 석가여래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았을 때 안 것이 아니고 영겁의 옛날부터 영겁의 부처에 의해 체험된 것이다.²¹⁾ 이런 논리는 눈앞의 일체 현상이 그대로 절대이면서 實相이라는 것인데, 이는 ‘色心實相’의 개념과 같다. 유심론이나 유물론처럼 사상적 무게를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신과 물질,心和色 모두에 진리가 담겨 있다는 뜻이며, 모든 사물, 즉 頭頭物物에 동일한 진리와 가치가 들어 있다는 주장²²⁾이다.

“눈앞에 비친 모든 것이 진실한 모습이니/ 모두가 의연히 본가를 밟고 있구나”라는 결련은 우리의 눈에 비친 사물 그 자체가 바로 진리라는 ‘제법실상’의

19) 『호산록』3권, <次韻李居士穎并序>, “山野囊於冬月閑居中 偶書山中作十二首 遙寄左右連和 前後凡二軸 動盈 右二十四首 語意天成 皆用道拈出 山家 乃知群服 雖異久 游心於一大事 豈與世上青黃赤白 之乎者也 尋常之格 雷同耶 且賀且賀 謹次元韻 因風遠寄.”

20) 『고려사』열전 19권.

21) 이영자, 『천태불교학』, 불지사, 2001, 81쪽.

22) 김인덕, 『조화의 원리』, 한국불교연구원 편, 불교사상사, 1978, 10~13쪽 참조.

시적 표현이다. 시적 화자는 앞의 구절에 제시된 삼라만상이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진리를 당당하게 드러낸 것을 찬탄하고 있다. 제자리에 서 있는 사물에서 불성을 확인하고 감동한 시인의 떨림이 시의 행간 밖까지 넘실거린다.

이런 논리는 <갑진년다보탑경찬소>에서도 이어진다.

지극하구나! 『법화경』의 가르침이여! 방편을 펴시어 지극하게 외치신 것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신 본뜻이십니다. 한 구절을 펴시어 모든 이들에게菩提의 뜻을 수기하시어 五逆의 罪人까지도 실상이 아님이 없으니 부처님의 공덕은 놀랍고 놀랍습니다. 本門과 迹門은 매우 깊고 깊어 한 번의 비가 세상 만물을 두루 적함에 어찌 뿌리·줄기·가지·잎을 가리겠으며, 미진과 같이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수명은 사실 요긴한 것을 하찮은 풀로 지목한 것과 같아서, 이 법은 분별하는 지혜로서는 알 수 있는 바가 아니니 오직 부처님만이 구명하시어 마침내 증득하실 수 있습니다.²³⁾

이 글의 앞부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부처가 이 땅에 오신 참뜻은 방편을 통해 진리를 밝히시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보리에 들 수 있다는 授記를 주시며, 五逆의 죄를 범한 중죄인도 곧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친 것을 찬탄한 내용이다. 후반부는 『법화경』을 本門과 迹門으로 나누어 정리한 천태 지의의 교설을 설명한 부분이다. 이곳에 드러난 법화사상은 ‘會三歸一’과 ‘久遠實成’이다. 비가 세상의 만물을 두루 적신다는 ‘一雨普霑’은 ‘會三歸一’의 비유이고, 미진처럼 헤아릴 수 없는 무량겁의 수명을 의미하는 ‘微塵遠壽’는 ‘구원실성’의 비유이다. 이런 내용들은 부처의 무한한 공덕과 영원성을 찬양하는 비유이다. 위 인용문에는 『법화경』의 지극한 의미를 밝히고 보급하려는 천책의 생각이 잘 나타나 있다.

다음 시는 ‘一雨普霑’과 ‘諸法實相’의 논리를 시작품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從日雲興一雨新	해 따라 구름 일어 한 차례 비 뿌리니
普霑一地茂疎親	천지 두루 적셔 멀고 가까움 개의치 않네
叢林卉木敷榮日	화초와 수목의 떨기들 나날이 번성하고

23) 『호산록』 4권, <甲辰年多寶塔慶讚疏>, “至哉 法花之爲教也 開權極唱 出世本懷 開一句 咸記菩提 指 五逆無非實相 功德希有希有 本迹甚深甚深 一雨普霑何擇根 莖枝葉 微塵遠壽實若喉襟 是法非分別所知 惟佛乃究竟而證”

枝葉根莖長養春	가지와 잎, 뿌리와 줄기 길게 봄을 기르네
忽使焦芽成妙果	타던 새싹에게 홀연히 묘과를 이루게 하니
定知甘液瀉玄津	진리의 나무터에 내린 감로수란 것 바로 알겠네
欲知最實開權事	최상의 실상을 알려면 방편의 일 열어야
結果純圓箇箇眞	맺은 열매가 완전히 원만하고 낱알이 진실하리라

〈호산록 3권, 更和法花隨品讚并序, 藥草品〉²⁴⁾

이 시는 『법화경』 28품이 사상적 배경이다. 이 시는 『법화경』 28품을 시로 지은 작품 가운데 한편이다. 이런 시를 <法花隨品讚>이라 하는데 천책은 2편의 <법화수품찬>을 지었다. 이런 작품들은 교술성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 <약초품>은 천책의 깊고 높은 정신적 경지와 천태사상을 자연스럽게 드러내어주는 작품이다. 천태사상의 논리를 충실히 수용하면서도 작품의 문학성도 우수하다. 이 작품의 중심 내용은 ‘회삼귀일’의 비유인 ‘一雨普霑’과 ‘諸法實相’이다. 기련에서 경련까지는 ‘일우보점’의 내용을 언급하고 결련은 ‘제법실상’을 다루고 있다. 한 번 내리는 비는 온 산천을 두루 적시고 백 가지 꽃을 두루 피운다. 이를 천태지의는 ‘一雨百花’라 했고, 천책은 ‘一雨普霑’이라 했다. 가뭄으로 타 들어가던 새싹과 나무들에게 비는 두루 은혜를 미친다. 천지를 적시는 비는 ‘천 강을 두루 비치는 달빛[月印千江]’처럼 親疎와 遠近을 가리지 않는다. 이는 깨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일천제나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살인죄인까지도 佛知見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부처의 은덕에 대한 비유이기도 하다.

결련의 논리는 더욱 분명하다. “최상의 실상을 알려면 방편의 일을 열어야/ 맺은 열매가 완전히 원만하고 낱알이 진실하리라”고 했다. 이 논리는 천태의 관점에서 보면 ‘開權顯實’이다. 방편을 통해 진실을 드러낸다는 뜻이며 三乘을 통해서 一乘에 이른다는 논리이다. 곧 삼승이 그대로 일승이라는 사상이다. 이는 ‘花果同時’²⁵⁾의 논리이기도 하다. 연꽃은 꽃과 열매가 동시에 생긴다는 뜻인데, 이는 범부(시작)가 곧 부처(결과)라는 말이다. 결련의 ‘낱알이 진실하리라[箇箇眞]’는 ‘제법실상’의 논리를 시적으로 다시 정리한 것이다.

그는 복잡하고 난해한 법화·천태사상을 절묘한 비유와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시적 풀이에 성공하였다.

24) 『호산록』 3권, <更和法花隨品讚并序>.

25) 『신수대장경』, 33권, 『法華玄義』, 682B.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화사상은 그의 중요한 사고체계의 하나였다.

Ⅲ. 선사상의 문학적 수용

1. 선적 행보와 그 지향점

천책은 천태종의 승려로서 『법화경』을 수지하고 실천하면서 일생을 보냈다. 그러므로 그의 행적과 사고에는 범화적 세계관이 두드러진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그가 ‘法華行者’라 불린 것도 당연하다. 천책의 주된 세계관이 천태사상인데, 禪의 우위를 강조하는 『선문보장록』의 편찬자라는 사실은 불교학계에 엄청난 파장을 주었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호산록』의 저자인 천책과 『선문보장록』의 편자인 천책이 동일인이나 아니냐 하는 문제가 큰 논란이 되었다.

두 책의 저자가 동명이인이라는 주장은 고익진과 채상식 등에 의해 제기되었다. 고익진은 천태종의 승려가 선의 우위를 주장하는 『선문보장록』을 편찬할 수 없고, 천책이 73세 이후에는 생존했다는 기록²⁶⁾이 없어 88세의 나이에는 이 책을 편찬할 수 없다고 했다. 채상식은 『선문보장록』의 찬자를 眞靜大禪師 混丘라 했다. 그러나 두 저자가 동일인이라는 주장은 이영자와 허홍식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영자²⁷⁾는 『선문보장록』에 나타난 선사상은 선교일치사상으로 천태 지의의 實踐禪인 三止三觀을 선종의 話頭公案과 동일한 관점에서 파악하고, 선교 양종을 회통하려는 사상이기 때문에 두 저자가 동일인이라 하였다. 허홍식은 이 책은 천태종이 성립되던 때와는 달리 선종에 접근하던 13세기 천태종의 경향을 반영한 것이라 하였고, 두 책의 저자는 동일인이라 하였다.²⁸⁾

필자는 이전에 발표한 논문에서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며 두 저자가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²⁹⁾ 이 자료는 민영규가 찾아낸 것으로

26) 『호산록』 3권, <次韻答李尙書頴入社長句>, “山僧行止便愴然 卜入雲峰五十年”

27) 이영자, 『천책의 천태사상』, 『한국천태사상의 전개』, 민족사, 1988. 244쪽.

28) 허홍식, 『고려후기불교사연구』, 일조각, 1990, 874쪽.

29) 강석근, 『천책의 행적과 시적 불사』, 『한국불교사연구』, 이회문화사, 2002, 124~130쪽.

수선사 6세 원감국사 冲止가 眞靜大禪에게 보낸 <寄眞靜通與大禪書>³⁰⁾라는 서찰이다.

이 서찰은 충지가 수선사 6세로 있을 때 쓴 것인데, 친책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담겨져 있다. 이 서신에는 충렬왕의 지시로 친책이 갑자기 4품이나 승진되고 입궐하라는 조칙을 받은 것을 경하하고, 아울러 임금이 충지 자신에게 내려준 어서 족자에 대한 감사의 시를 친책에게 보내니 기회를 보아서 충렬왕에게 전해 달라는 부탁이 들어 있다.

필자는 이 서찰을 통하여 몇 가지 사실을 해명하였다. 첫째, 眞靜이라는 법호는 그의 생존시에 이미 사용되었다. 둘째, 충지는 진정의 나이를 “구십 세의 학 머리를 한 노친[九十歲鶴髮之親]”이라 하였다. 충지(1226~1293)가 수선사의 6세가 된 것은 1286년이고 몰년은 1293년이다. 이 서찰은 이 사이에 쓰여졌으므로 이 기간의 친책의 나이는 81~88세로 추정된다. 그리고 『선문보장록』의 서문³¹⁾에 기록된 至元卅年 癸巳十一月日也 忠烈十九年(1293년)은 충지의 몰년인 동시에 친책은 88세가 되는 해이다. 충지가 “구십 세의 학 머리를 한 노친”이라 한 표현은 80대 후반의 나이에 대한 통칭일 수도 있다.³²⁾ 이 점은 채상식의 다

30) 조명기·민영규, <寄眞靜通與大禪書>, 『曉城先生八十頌壽高麗佛籍集佚』, 『曹溪宓庵和尚雜著』, 동국대학교출판부, 1985, 673~676쪽. “(…)丈下以雄深雋偉之質宏敏博洽之才 遭遇聖明 翱翔禁闈 日陪翰墨之歡 以助文明之化 間以法雨潛潤帝業實千載一時之際會也 雖安老之見重於唐高 璉公之見幸於宋仁 亦無以加矣 遂乃寵及高堂使九十歲 鶴髮之親 一旦驟登四品 承詔赴闕 主上特遣中使中路 問仍賜鞵帶以示褒美之意 此千萬古未曾有之盛事也 朝野譁傳 以及於林下之耳 山野 小童稚時 辱知之行 固不在淺淺之間 聞之失喜 其慶躍之至 亦不同尋常之人 然性本疎懶 而又僻處南荒窮俗之中 凡與人書問往還 但相和之而不敢先唱也 以故未嘗修一書達放丈下 竟隨不謹 是亦衲僧家之本分 想下必以此罪責也 竊聞唐武沙汰之際 佛法幾於掃地矣 洎宣宗卽祚 中興釋教 使天下再轉法輪者 實塩官安公 先結主知所致然也 噫 自匡烈公捐館 吾道漸微 近世以來 命如懸紗 此凡有識者 所共槌胸歎惜者也 今丈下朝夕 密趨龍顏親承顧問 其遇上之知 萬萬陪於塩官 則吾道之復興 可立而待也 伏望丈下 深詔之深思之 努力勉旃 常以再振宗風爲念 則吾道幸甚吾道幸甚 山野近詣曹溪壽室伏觀 宣賜御製御書寶蔕 其句格之美 筆法之妙 固不可議 山野仰而觀之目眩心醉 若身躍於雲霄之上 目觀於日月之光也 不忍咸歎 謹依御製 強成四絕齋莊薰浴 遙呈丈下 伏望丈下 無以蕪拙爲棄伺霄吁之際 幸于天階 以資天顏之一解 則實山野平生之幸也 伏署未退 惟爲法珍齋 以副遐壽 不宣惶恐頓首。”

31) <선문보장록> “海東沙門 內願堂 眞靜大禪師 天頭蒙且序 至元卅年 癸巳十一月日也 忠烈十九年”

음 주장과 비교해 볼 때 객관성이 생긴다. 混丘(1251~1322)가 一然의 <麟角寺碑文>을 찬술할 때 자신을 “寶鏡寺住持 通輿 眞靜大禪師 山立”이라 소개했는데, 이 진정이란 이름으로 인해 채상식은 『선문보장록』의 찬자를 혼구라 하였다.³²⁾ 그러나 수선사 법주인 노년의 충지가 42세에 불과한 혼구에게 이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낼 수는 없다. 세째, “대궐에 드시어 나날이 文翰의 즐거움을 같이 하여 문명의 교화를 도우셨습니다”라는 편지 내용과 “조석으로 임금을 가까이 하여 친히 자문하고 계시니”라는 충지의 진솔로 보아 친책이 머물던 곳은 왕궁의 내불당인 內願堂³⁴⁾일 것이다. 그리고 90세인 천책에게 주어진 임무는 충렬왕의 국사가 되어 왕정을 자문하는 일을 것이다. 그러므로 『선문보장록』의 서문과 발문에 기록된 內願堂은 천책의 호가 아니라 내불당주라는 의미일 것이며, 또한 李混의 발문에 나타난 今內願堂 鶯谷住老 呆庵 大禪翁은 『호산록』의 저자와는 동일인이고, 이 발문이 쓰여진 至元 31년(1294년)에도 그는 89세로 생존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³⁵⁾ 넷째, 충렬왕은 원찰인 백련사 계통인 妙蓮寺 등에 자주 행차³⁶⁾하면서 천태종의 교세는 급격히 성장하였고, 천책의 속제자로 백련결사에 참여한 鄭興이 충렬왕의 총애를 받았다.³⁷⁾ 왕의 총애를 받던 정흥 등의 추천으로 그가 內願堂主와 國師가 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본 논문은 필자가 이전 논문에서 제기했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천책의 禪의 행보와 禪思想을 탐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천책의 『호산록』은 4권 중 3·4권만이 남아 있고, 또 단편적인 시문에서 특정한 사상을 탐색해 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천책에 대한 바람직한 연구를 위해서는 이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천책은 법화사상과 아울러 禪的 행보와 禪思想을 견지한 인물이었다. 이 같은 선적 행보와 선사상은 그를 자연스럽게 『선문보장록』과 연관시켜 주기 때문이다.

32) 천책의 생년이 1206년이라는 주장도 추정에 의한 것이다.

33) 채상식, 『고려후기불교사연구』, 일조각, 1993, 102~111쪽.

34) 동아대학교에서 펴낸 『역주고려사색인』에 따르면 內佛堂은 2번 內願堂은 7번 나온다.

35) 한기두, 『한국선사상연구』, 일지사, 1993, 340쪽.

36) 채상식, 앞의 책, 182쪽.

37) 『국역고려사절요』 21권, 충렬왕 16년조, 민족문화추진회, 1984, 171~172쪽.

了世가 창립했던 백련사는 지눌의 수선사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 了世는 조계종을 창립한 지눌의 결사에 오래 참여하였고, 아울러 그에게서 선을 배웠다.³⁸⁾ 또 백련사 2세 天因은 수선사 2세인 무의자 慧諶에게 나아가 曹溪禪을 배웠다.³⁹⁾ 이처럼 백련사는 친조계종의 寺風을 유지하였다. 아울러 친척은 수행기에 선종의 경전들을 널리 읽었고, 참선에도 열중하였으며, 조계종의 승려들과 다양하게 교류하였다.

다음의 인용문은 이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 사이에 타종파인 달마에서부터 남쪽의 혜능과 북쪽의 신수, 정전, 방전에 노닐고 더불어 화엄, 기신, 유식, 법상, 비니, 율종, 대승, 소승, 돈설, 점설을 유력하였고, 비록 총명이 이전보다 못하지만 오히려 벽에서 듣는 것을 부지런히 하여 애오라지 벽을 대한 것 같다는 꾸지람은 면하였고,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아 마치 성냄과 장애가 없어진 것 같아 진실로 스스로 경사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⁴⁰⁾

위의 인용문 가운데서 선종에 대한 그의 공부 내용은 “自一花五葉，南能北秀，正傳傍傳”이란 표현에 해당된다. ‘일화오엽⁴¹⁾’은 禪宗이 達摩에서 출발하여 曹溪宗·臨濟宗·雲門宗·滂仰宗·法眼宗의 五派로 발전한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는 남쪽의 惠能和 북쪽의 神秀에 대해서도 공부하였고, 혜능의 正傳과 傍傳까지 섭렵했다고 했다. 이런 표현은 <讀大藏住庵請田文>에서도 보인다. “빈도는 일찍이 祖師의 경지에 참여하여 대강이나마 달마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을 탐구하였다⁴²⁾고 했듯이, 그는 禪宗의 ‘마음’ 탐구에도 관심을 보였다.

아울러 친척은 조계종 승려들과 활발하게 교류하였다. 수선사 慧諶의 제자인 金藏大禪師와 교류하였다. <기금장대선사>라는 5편의 시는 이들간의 교류관계를 잘 보여준다.⁴³⁾ 또한 그는 조계종 출신의 승려인 卓然과 깊이 교류하였다.

38) 崔滋, <萬德山白蓮社圓妙國師碑銘>, 『동문선』 117권.

39) 林桂一, <萬德山白蓮社靜明國師詩集序>, 『동문선』 83권.

40) 『호산록』 7권, <答芸臺亞監閔昊序>, “(…)其間遊歷 他方自一花五葉 南能北秀 正傳傍傳 與夫華嚴 起信 唯識 法相 毘尼 律宗 大乘 小乘 頓說 漸說 雖聰明不及於前時 尙勤耳壁之間 聊免面牆之誚 心地不蓬 似無恙導 眞箇自慶(…)”

41) 『중문대사전』, “禪宗達摩一祖 衍成 曹溪 臨濟 雲門 滂仰 法眼 五派也.”

42) 『호산록』 7권, <讀大藏住庵請田文>, “貧道不佞早參祖域 粗究西來之旨(…)”

龍藏寺 주지를 맡고 있던 당대의 명필인 탁연이 『진본화엄경』의 사경을 완성하자 축시를 보냈다.⁴⁴⁾ 또 천책이 상주에 있는 東白蓮社에 주석할 때, 새로운 전각들을 짓고 그 편액들을 탁연에게 부탁하였다.⁴⁵⁾ 이처럼 천책은 누차 탁연과 어울렸고 <法花隨品讚>도 주고받았다.⁴⁶⁾ 아울러 그는 <爲山人文阮倩人書華嚴經願文>에서 보듯이 曹溪山人 貫諧에게도 『화엄경』의 寫書를 부탁하였다.⁴⁷⁾ 이러한 사실로 보아 그의 학문적·종교적 관심은 천대종에만 국한되지는 않았고, 선종에 대해서도 깊은 호감을 가졌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고려해 보면, 그의 시문에 짙게 드리워진 선적 분위기도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2. 선적 논리와 서정의 시적 합일

천책은 『선문보장록』과 『선문강요』를 제외하고는 禪과 관련된 글을 남긴 것이 없다. 『호산록』에도 선에 관련된 글들은 전하지 않는다. 설사 그가 선에 관한 글을 지었다 하더라도 책이 편집될 때 삭제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는 선종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였고, 선종의 승려들과 다양하게 교류하였다. 『선문보장록』이 그의 저술로 인정받기까지는 선승과의 교류 기록은 그의 친선종적 행보를 보여주는 간접증거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그의 선적 취향과 세계관의 실체를 살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의 시에 나타난 선사상을 고찰해보는 것이다. 시는 장르 특성상 그의 선적 행보와 세계관을 명확하게 드러내지는 못하더라도 선에 대한 그의 관심과 정황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43) 『호산록』 3권, <寄金藏大禪師>.

44) 『호산록』 3권, <次韻寄龍藏社主卓然公 并序>.

45) 『호산록』 4권, <遊四佛山記>, “比及三年有成 仍以功德山白蓮社 請曹溪山人卓然書而榜之 又使然公書道場堂 祖師殿 虛白樓 神清樓 等額 以懸之.”

46) 『호산록』 3권, <中統三年 壬戌 五月初六日 伏承法雲然禪老所傳示 大宋延慶寺諸尊宿 法華隨品讚一軸 句句皆佛精祖髓 翻敲一大事尤耀 海外何其趨歟 某早參萬惠山白蓮社 頂謁圓妙國師 始立普賢道場 故此開顯妙典 常於念念 荷擔勸發一切 況今獲觀寶偈 栢悅無已 強和成韻語聯書遙獻 雖煙雲萬里 海陸千重 想道眼相照不隔一絲毫許>.

47) 『호산록』 4권, <爲山人文阮倩人書華嚴經願文>, “某發弘心 請曹溪山人貫諧 書寫三本 凡百六十卷(…)”.

그의 시에는 선적 정서와 세계관이 곳곳에 표출되어 있는데, 이는 그의 사상의 한 측면이 선적 세계관임을 입증해주는 예가 될 것이다.

다음 시는 그의 선적 정서와 세계관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窮谷殘冬絕世喧	깊은 계곡 늦겨울 세속 소란 끊어내니
演經那欲究玄根	불경 읽어 어찌 진리 다 찾을 수 있으리오
更深篆印燒成冷	전향 깊이 타들어 갈수록 추위 더해 가고
坐久蒲團尙解溫	오래 참선하니 부들방석이 오히려 따뜻하네
愛日臨簷捫佛子	사랑스런 해가 처마에 임해서 불자를 쓰다듬고
悲風度嶺聽王孫 ⁴⁸⁾	슬픈 바람이 산 넘으며 원숭이 울음을 듣네
山家二六時中樂	절집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즐거움은
祇可呵呵不可言	다만 꺄꺄 웃을 수 있으나 말로 할 수 없네

<호산록, 次韻李居士穎并序, 24수 중 19수>

이 시는 한 편의 뛰어난 선시이다. 시에 선적 정조와 선풍이 강하게 드러난다. 특히 선적 논리가 두드러진 곳은 기련과 결련이다. 기련의 구체적인 선적 모티프는 ‘不立文字論’이다. 불경을 읽는다고 해서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禪宗의 ‘불립문자’의 논리에 그대로 닿아 있다. 이런 논리는 『대장경』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며, ‘不立文字 教外別傳’을 중지로 하는 선종의 대표적 주장이다. 곧 불심을 후학에게 전하는 방법이 『대장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靈山會上의 ‘拈華微笑’에 있다는 것이다. 부처의 ‘不一字說’과 維摩居士의 ‘不二法門’도 같은 맥락이다. 석가가 깨달은 후 12分經이나 되는 경전을 강설했지만 결국에는 한 마디 말도 설하지 않았고⁴⁹⁾ 유마거사가 須菩提의 물음에 침묵한 것이 오히려 더 큰 가르침이 되었다는 『유마경』의 고사는 선종의 언어관을 담고 있다. 이런 논리는 결국에서 다시 확인된다. “웃을 수는 있어도 말할 수는 없다”는 진술은 기련과 같은 맥락이다. 이런 논리는 그가 『법화경』을 최고의 경전으로 역설했던 수많은 장면과는 분명히 배치된다. 경전을 거부하는 이런 사고방식은 그가 이미 禪門 깊이 들어와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48) 王孫: 獼猴之別名.

49) 혜심 저, 김성구(月雲) 옮김, 『한글대장경』, 『선문염송집』 1책, <法論>, 동국역경원, 1994. 129쪽. “世尊 臨入涅槃 文殊請佛再轉法輪 世尊咄云文殊 吾四十九年住世 未曾說一字 汝請再轉法輪 是吾曾轉法輪耶”

이런 논리는 다음의 <禪堂偈>에도 이어진다.

半軒猶落日	선당 한 모퉁이에 석양 아직 비치지만
一室自清風	한 선실에 맑은 바람 스스로 일어나네
坐久境逾寂	오랜 선정으로 주위 더욱 고요하니
莫言空假中	공·가·중을 그대 말하지 마시오

<호산록 3권, 禪堂偈>

이 시는 禪機詩이다. 암자에 비치는 석양, 선실의 한쪽 모퉁이에서 일어나는 淸風, 그리고 오래도록 그치지 않았던 入定의 상태, 그곳을 감싸고 흐르는 적막 [寂]이라는 시어들은 자연스럽게 선취를 느끼도록 해준다. 자연과 하나된 시적 화자는 空·假·中의 가르침을 거부한다. 空·假·中은 천태학의 대표 논리인 ‘諸法實相論’을 구체적으로 전개시킨 사상인데, ‘법화행자’였던 그가 이것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천태 지의는 우주의 만물은 空·假·中의 세 진리에 귀결되고, 불교는 이 진리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목적이라 했다. 이 空·假·中은 소극적 부정의 논리인 空諦와 소극적 긍정의 논리인 假諦, 이런 부정과 긍정의 양극의 차별을 극복하려는 中諦로 이루어진다. 이 삼제는 서로서로 圓融無碍하기 때문에 圓融三諦⁵⁰⁾인데 이를 거부한 것은 천태교학을 부정하는 것이다. 결련의 진술은 깨침의 세계로 들어가는 데에는 천태의 가르침이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뜻이다. 이런 논리는 禪家の ‘不立文字’의 개념과 연결된다. 이 불립문자의 논리는 ‘拈華微笑’에 직접 연결된다. 선종이 다른 종파와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불립문자’의 사상이다. 언어로는 진리를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대장경』을 부정하고 ‘이심전심’을 강조한다. 『선문보장록』의 중심테마도 ‘불립문자’이다. 이 시의 ‘불립문자론’은 천책의 禪思想과 禪的 세계관을 해명할 수 있는 단서인 것이다.

다음 시는 그의 선적인 정서와 세계관이 가진 특징을 잘 보여준다.

自慶幽居樂事多	산중생활 스스로 경사로 여기니 즐길 일 많고
寂無塵世問誰何	적막하여 티끌 없으니 누구에게 무엇을 물으리오
天寒已迫玄駒貴	매서운 날씨가 닥쳐오니 개미조차 귀하고

50) 이영자, 『천태불교학』, 불지사, 2002, 149~153쪽 참조.

日用唯動白馬馱	분주한 나날은 백마가 경전을 신듯 바쁘네
入定雪龕觀嘿嘿	눈 덮인 감실에서 선정에 들어 조용히 관조하고
出遊雲嶠笑呵呵	구름에 쌓인 산으로 다다니며 곁곁 웃네
可憐夜月波波現	늦은 밤에 예쁜 달이 밝게 빛나더니
一亘清光屬我家	하나로 가득찬 맑은 빛이 우리 집을 비추네

〈호산록, 次韻李居士穎并序, 24수 중 14수〉

이 시에는 탈속적인 수행자의 일상과 도인의 自在한 정신세계가 잘 나타나 있다. 기·함련은 산사의 일상과 겨울준비로 바쁘게 돌아가는 산사의 정경을 포괄적으로 묘사하였다. 경련은 수행승의 자유로운 일상을 노래하였고, 결련은 득도자의 自在한 정신세계를 드러냈다. 특히 결련은 일상과 자연을 노래한 일반 시인의 시가 아닌 선승의 선시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구절이다. 천책이 선적 세계관에 침윤되어 있고 일거수일투족이 깨침의 세계를 향하고 있는 禪僧이라는 점을 이 구절은 환기시켜 준다. 달빛은 불법의 상징으로 항상 청정하게 비치는 불성을 의미한다. 결련은 入定과 行禪을 통해 한 소식을 얻고 곁곁 웃는 시적 화자를 드러낸 함련과 짝을 이루어 깨달음의 상황을 결정적으로 제시한다. 온 우주를 하나로 감싸던 淸光이 내 집에 비친다는 구절은 시적 화자가 우주와 합일된 경지, 즉 깨침의 세계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선승들은 자연 속에서 생활하지만 悟道를 지향한다. 이 때문에 이들의 行住坐臥는 깨달음을 향해 열려 있다. 선승들은 일상이나 자연을 노래하면서도 선적 인식과 깨달음을 위한 노력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시에는 항상 禪의 긴장이 내재되어 있다. 이런 시상은 다음 구절에도 확인된다. “산중의 진정한 낙은 임금의 즐거움을 초월한 것이라 /안개 낀 만 골짜기가 모두 내집이라네 (眞樂妥超南面樂 煙雲萬壑盡吾家).”⁵¹⁾라는 진술은 선승의 자재한 정신과 物我一體의 경지에 오른 도인의 내면을 잘 보여준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그의 선시에는 기발한 발상이나 역설적 표현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선적 논리와 시적 정서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자연시의 형태로 선적인 경계는 드러난다. 이런 시적·선적 성취는 도인과 시인으로서의 그의 능력이 범상치 않음을 보여준다. 그는 천태종의 승려였지만 선시와 선사

51) 『호산록』 3권, 〈次韻李居士穎并序, 24수 중 20수〉.

상에도 일가견을 가진 고승임을 이 시는 증언하고 있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전개해 온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천책은 백련사를 창립한 了世의 전통을 이어받은 4대 사주로서 백련사의 종교적·정치적·문화적 위상을 현저하게 고양시킨 고승이었다. 그는 과거 출신이라는 인연과 문학적 역량, 종교적 수행력을 바탕으로 사대부들을 백련결사에 적극 영입하여, 백련사의 불교문화를 꽃피웠고, 신앙단체인 백련사를 詩社로 활용하며 불교계와 문학계를 이끌었던 지도자였다. 그래서 그의 인물됨은 ‘法華行者’였고, 그의 삶은 곧 ‘詩의 佛事’였다. 다산 정약용에 의해 그는 최치원, 이규보와 함께 신라와 고려를 대표하는 3명의 시인으로 인정되었지만, 한국문학사에서 잊혀진 시인이었다.

법화사상의 진수를 수용하고 『법화경』을 우선시 하는 천태종의 관점을 드러낸 시들은 특성상 교술적인 내용이 강조되는 수가 많지만, 그는 뛰어난 비유와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시의 격조와 사상적 고원함을 잘 드러내 주었다.

그의 주된 세계관은 법화사상이었지만, 그의 행보와 저작은 법화사상으로 묶어둘 수 없을 만큼 넓었다. 그의 삶과 시작품에 담긴 또다른 가치관은 禪사상이다. 백련사는 전통적으로 조계종과 친밀하게 지내는 寺風이 있었고, 그도 선서들을 널리 읽고 선승들과 두루 교유하였다. 이런 흔적들은 그의 문집에서 자주 목격되었다. 그의 시작품에 내재된 주된 선사상은 ‘불립문자론’이고, 자연시와 같은 선풍의 표현이 그 특징이다. 이런 시들은 그가 뛰어난 시적 능력과 선적 수행력을 가졌던 고승임을 증언해준다.

천태종에 속하는 그가 『선문보장록』과 같은 선서의 편찬자가 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도 여기에 있다. 그의 禪詩는 천책이 최소한 88세까지는 살았다는 증거가 되는 冲止의 서찰인 <寄眞靜通與大禪書>와 함께 『호산록』의 천책이 『선문보장록』도 지었을 가능성을 확인시켜주었다. 이것은 『선문보장록』이 천태종이 선종에 접근하던 13세기 경향을 반영한다는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그가 선사상보다는 법화사상을 우선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의 사상체계는 이원적이다. 공식적인 측면과 청년기에는 법화사상에 집중하였고, 개인적인 측면이나 노년기에는 선사상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것 같다. 백련사를 창립한 了世가 하층민 포교에 집중했다면, 천책은 사대부에 중점을 두었다. 대중불교에서 엘리트 불교로 寺風이 변했다는 뜻하다. 이는 그의 사상변화를 알려주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천책은 문학적·사상적으로 천태종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수선사에서 문학·사상적 성과를 최고조에 올린 인물이 진각국사 慧謙이었다면 백련사에는 천책이 있었다. 이 두 사람을 고려의 신흥 불교가 최고조에 이른 시기에 활동한 대표적 사상가이자 시인이었다. 수선사는 혜심 이후 원감 冲止 등에게 전통이 계승되어 갔지만 그 후에는 사풍이 급격하게 경직되었고, 백련사도 천책의 법통이 丁午나 『석가여래행적송』을 쓴 雲默 등에게 전해졌지만, 그 때의 백련사는 이미 불교문화의 정점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것으로 보아 천책은 고려 불교문화의 중흥기를 대표하는 사상가이자 禪詩人이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법화사상, 천태사상, 선사상, 이원적 세계관, 회삼귀일, 구원실성, 선문 보장록

참고문헌

- 『호산록』, 『동문선』, 『만덕사지』, 『고려사』
『한국불교전서』, 『여유당전서』, 『고려사절요』
경허 편, 이철교 역 : 『선문촬요』, 민족사, 1999.
요 원, 『해동영험전』, 영산법화사출판부, 1982.
강석근, 『이장용의 승려 교유와 불교시』, 『한국불교시연구』, 이회, 2002.
_____, 『천책의 행적과 시적 불사』, 『한국불교시연구』, 이회, 2002.
고익진, 『백련사의 사상전통과 천책의 저술문제』, 『불교학보』 16집, 1979.
다무라 시로 외, 『천태법화의 사상』(이영자 역), 민족사, 1990.
박용운, 『고려시대사』, 일지사, 1993.
우현식, 『진정국사의 문학관과 시세계』, 한국정신문화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1997.
이병주 · 이종찬 외, 『한국한문학사』, 반도출판사, 1991.
이상하, 『고려조 불가의 불교시에 대하여 -자연인식의 변모양상을 중심으로-』,
『한문학연구』 8집, 계명한문학회, 1992.
이영무, 『여말기의 불교』, 『선과 동방문화』, 한중불교학술교류회 편, 1994.
이영자, 『한국천태사상의 전개』, 민족사, 1988.
_____, 『천태불교학』, 불지사, 2001.
이재창, 『고려후기전통선의 동태, -지검, 일연, 천책을 중심으로-』, 『한국선사상
연구』,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4.
이종찬, 『한국의 선시』(고려편), 이우출판사, 1985.
_____, 『한국불가시문학사론』, 불광출판부, 1993.
조명기 · 민영규 편, 『효성선생팔십송수고려불적집일』, 『조계복암화상잡저』, 동
국대학교 출판부, 1985.
진성규 역, 『국역원감국사집』, 아세아문화사, 1988.
채상식, 『고려후기불교사연구』, 일조각, 1991.
한기두, 『한국선사상연구』, 일지사, 1983.
허홍식, 『진정국사와 호산록』, 민족사, 1995.
_____, 『고려불교사연구』, 일조각, 1990.

<Abstract>

The Dualistic Contemplation of Monk
JinJeong(眞靜國師) and the Way of His Poetic
Presentation

Kang, Seog-Keun

This paper is going to try to light up what the dualistic idea of JinJeong (眞靜) CheonChaek(天頌) looked like and how he formed his idea into the poeticworks. CheonChaek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the Buddhism at Baengnyeonsa(白蓮社), where A lot of followers came together: They were all fascinated by his career to have passed the state examination, his competence to carry out religious disciplines and his talent in literature. JeongYakyong considered him as one of the three representative poets in Korea Dynasty. However, CheonChaek has been almost forgotten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His idea was based mainly on Beopwasasang(法華思想), while he accepted Sunasang(禪思想) as another way to understand the world. His poems, which delivered Beopwasasang are thought to have relatively low quality of literature. They show nevertheless his ideological dimension and high quality of poetic value. They also make it possible to observe how skillfully he could deal with metaphoric and rhetorical technique. His poems of Zen style written from a view of nature are recognized as excellent works due to their poetic refinement.

Key Words : CheonChaek(天頌), Beopwasasang(法華思想), Sunasang(禪思想), poems of Zen style